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1, 57-68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1.003

연구보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상황에서 사적 및 공적 지지 추구 비교 연구: 한국인과 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송 지 원　　나 진 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연인 혹은 배우자가 가해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맥락에서 여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선호하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를 확인했다. 총 400명의 한국 및 미국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문화 공통적으로 공적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공적 지지)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관계망 안에서 사회적 지지(사적 지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탐색적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과 접근 및 회피동기, 정서표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 때, 문화 공통적으로 접근동기 및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사적 지지 추구가 높았지만 공적 지지 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공적 및 사적 지지로 세분화하여 탐색하고 비교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개인차 변인을 활용한 개입 방법은 공적 지지의 활용 장려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사회적 지지, 접근동기, 회피동기, 정서표현

* 이 논문은 재단법인 지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발간되었음.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이 일생 동안 가장 흔히 겪는 폭력의 형태 중 하나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해자로서 행사하는 폭력이다(World Bank, 2022).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여 애정과 지지를 나누기로 예상했던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행한 경험이지만, 로맨틱 관계를 형성한 혹은 형성했었던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 입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의 IPV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 중 19.4%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4).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하 IPV)은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가리며 대응을 어렵게 한다(김효정, 2024).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적 가족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사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제도 및 체계에서 도움을 제공(공적 지지)하고 개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같이 모여 사는 게 보편적이었던 이전 세대에 비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된 현재에서는 가족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IPV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 건강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이들에 비해 높은 폭력 예방 및 회복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ylaska & Edwards, 2014).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IPV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IPV 상황에서 여성들이 사적 및 공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공적 지지 추구와 관련있는 심리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자 집단의 배경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참여자를 모집하고 정서 및 물질적 지지를 포함하여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친밀한 파트너란 정서적 연결을 통해 개인 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기적인 신체 접촉 또는 성적 행동을 하는 커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다(Impett, Gable, & Peplau, 2005). WHO(2012)에 따르면 IPV는 “과거 또는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여성에게 행사하는 가장 흔한 폭력으로 신체적, 성적, 정서적(심리적) 학대와 행동 통제를 포함한다”. IPV는 전세계적으로 공중 보건 및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개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WHO, 2002). 또한, 피해자는 인격체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며(Gervais et al.,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주요 우울장애가 IPV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됐다(Marshall, Panuzio, & Taft, 2005). 대개 IPV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횟수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Carmo, Grams, & Magalhães, 2011) 시기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 형태의 폭력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특히 여성이 가장 흔히 겪는 폭력의 종류가 IPV라는 점에서 이에 방점을 둔 사회적 지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의 가해자는 모두 당시 배우자가 1위를 차지했고,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가족부, 2024). 따라서 IPV 맥락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사회적 지지

개인이 관계망의 보살핌과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 또는 경험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는 효과적으로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감소시킨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는 IPV와 연관되어 탐

구되어 온 심리변인들 중에 하나이다. 예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한 지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IPV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Van Wyk et al., 2003). 나아가, IPV 생존자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심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Ogbe et al., 2020). 또한, DePrince와 동료들(2012)은 종단연구에서 IPV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변인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공동체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이들의 우울 증상, 공포 수준 등이 완화됐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은 생존자들은 그러지 못한 이들에 비해 폭력을 경험하는 중에나 후에 긍정적 예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개인적 관계망 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연구했다. 기존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COPE 척도(Coping Orientations to Problems Experienced;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Brief COPE 척도(Carver, 1997) 및 MSPSS(Multidi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upport Scale; Zimet et al., 1988)는 모두 사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MSPSS는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상을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지지를 측정했다(예: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웃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관계가 약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Esteve et al., 2024)과 고립된 환경에 놓였을 때 피해자는 IPV에 더 취약해진다는 점(Beyer, Wallis, & Hamberger, 2015)을 고려하면, IPV 상황에서 사적 관계망 바깥에서 제공받는 도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친분 없는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중 대표적으로 공익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경찰을 공적 지지의 주체로 정의하여, 이를 제공받는 상황을 사적 지지를 받는 상황과 비교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위로와 관심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나 현실적 조언을 포함하는 도구적 지지로 유형이 한정되어, 이와 구분되는 물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추구를 탐구했다.

또한, 본 연구는 IPV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개인차 변인들이 사적 및 공적 지지 추구와 보이는 관계를 탐색했다. 로맨틱 관계에서 희생하려는 동기는 IPV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 추구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희생동기의 하위변인인 접근 및 회피동기와 사적 및 공적 지지 추구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접근동기가 높은 이들은 관계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경험한 반면, 회피동기가 높은 이들은 관계에 대한 불안이 비교적 높게 보고되어(Gable, 2006), 접근 및 회피동기가 낮거나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검증했다. 아울러,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서표현과의 관계도 검증했다. 개인이 정서를 표현하는 빈도는 문화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수반하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므로(예: Kim & Sherman, 2007; Kokkoris & Kühnen, 2014) 참여자의 정서표현이 사회적 지지 추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유형 중 공적 및 사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의 차이 비교를 주로 탐색하고, 개인차 변인인 접근 및 회피동기, 정서표현과의 상관관계를 추가분석하여 사회적 지지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탐색적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했으며, 대조되는 사회 · 문화적 환경 속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참여자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들 간 일관된 추구 경향이 나타나는지 탐색했다.

방 법

연구 참가자

국내 조사업체 ‘엠브레인’과 해외 조사업체

'Prolific'을 통해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모집했다. 각 업체에서 한국 및 미국 참가자를 모집했다(한국 참가자: 20-29세 27명, 30-39세 51명, 40-49세 54명, 50-59세 44명, 60-69세 24명; 미국 참가자: 20-29세 27명, 30-39세 54명, 40-49세 50명, 50-59세 45명, 60-69세 24명). 연애/동거/결혼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로맨틱 관계에 있다고 정의했으며, 사전질문에서 로맨틱 관계에 있지 않은 참가자들은 모집에서 제외했다. 이외 사전에 예비 참가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나이, 지정 성별, 성적 지향성, 민족, 모국어였다.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 파트너가 가해하는 IPV라는 점과 WHO(2018)에서 161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 여성의 약 30%가 IPV 및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는 지정성별이 여성이며 성적 지향성이 이성애자인 참가자들만 모집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는 한민족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미국 참가자는 유럽계 미국인이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모집했다. 설문지 중간의 주의검증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각 나라 참가자 200명으로 총 참가자 수는 400명이었다. 설문의 총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설문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실제 의도를 명시한 설명문을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를 인정 받은 참가자들은 업체 운영방침에 따른 사례를 지급받았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참가자를 모집한 후 연령대를 분석했으며, 유사한 연령대로 한국 참가자를 모집했다. 전체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43.53세였다(SD = 11.71).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다(SGUIRB-A-2311-50).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추구

본 연구는 사적 및 공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를 다시 정서 및 물질적 지지로 나누어 네 개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 IPV에 관한 선행연구들(예: Allen et al., 2004; Liang et al., 2005; Shannon et al., 2006)을 참고하여 척도 문항으로 구성했다. 우선,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가상의 폭력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참가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 앞에 단순 가정문(i.e., "나는 연인/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을 읽고 상상하도록 구성했다. 정서-사적 지지, 정서-공적 지지, 물질-사적 지지, 물질-공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았다: "나는 연인/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조언, 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추구할 것이다", "나는 연인/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와 친분이 없는 사회복지사, 경찰 등으로부터 조언, 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추구할 것이다", "나는 연인/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안전한 환경제공, 금전적 지원 등 물질적 지지를 추구할 것이다", "나는 연인/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나와 친분이 없는 사회복지사, 경찰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제공, 금전적 지원 등 물질적 지지를 추구할 것이다". 모든 문항을 7점 척도(1 =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7 = "매우 선호한다")로 측정했다. 점수가 더 높을수록 해당 사회적 지지를 더 선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접근 및 회피동기

Feeney와 Collins(2003)가 개발한 돌봄동기 척도(Motivations for Caregiving Scale)를 로맨틱 관계 내 희생동기로 개정한 척도(Impett, Gable, & Peplau, 2005)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로 접근동기 여덟 문항과 회피동기 일곱 문항으로 구성됐다. 본 척도의 하위변인 중 접근동기란 파트너를 행복하게 하고 긍정 강화된 관계를 만

들기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동기(예: “때때로 현재 연인/배우자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내 연인/배우자를 사랑하고 그/그녀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이며, 회피동기란 파트너와 갈등을 겪지 않고 부정 악화된 관계를 피하기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동기(예: “때때로 현재 연인/배우자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를 의미했다. 접근동기와 회피동기의 Cronbach's α는 각각 .869와 .811로 보고됐다.

정서표현

Gross와 John(1997)이 개발한 정서표현 측정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됐다(예: “나는 내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어렵다”). 정서표현의 Cronbach's α는 .852로 보고됐다.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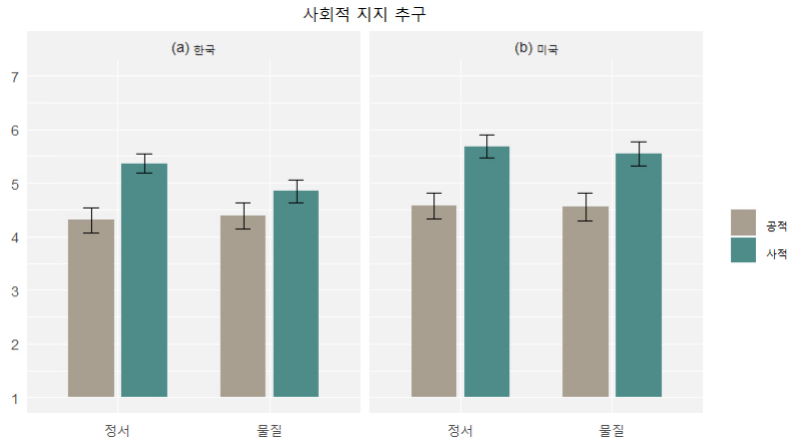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추구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반복측정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사회적 지지 추구와 탐색적 개인차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차이 비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미국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지 추구 총 점수가 한국 참가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98) = -2.98$, $p = .003$, Cohen's $d = -0.30$). 한국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지 추구 평균은 4.73($SD = 1.20$), 미국 참가자들의 평균은 5.09($SD = 1.25$)로 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선행연구처럼 미국 참가자들이 한국 참가자들보다 전체 사회적 지지 추구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예: Kim et al., 2006; Kim & Sherman, 2007; Taylor, 2011).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를 추구하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탐색적으로 정서 및 물질적 지지의 추구 또한 확인하기 위해 2(거리감: 사적 vs. 공적 지지) × 2(형태: 정서적 vs. 물질적 지지) ANOVA를 실시했다. 한국 집단의 경우, 거리감의 주효과($F(1,199) = 46.47$, $p < .001$, $\eta_p^2 = .189$), 형태의 주효과($F(1,199) = 8.80$, $p = .003$, $\eta_p^2 = .042$) 그리고 거리감과 형태의 상호작용($F(1,199) = 24.62$, $p < .001$, $\eta_p^2 = .110$)이 모두 유의했다. 그림 1-(a)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물질적 지지에서 모두 한국 참가자들은 사적 지지를 공적 지지보다 선호했다(정서적 지지: $t(199) = 8.41$, $p < .001$, Cohen's $d = 0.59$, & 물질적 지지: $t(199) = 3.55$, $p < .001$, Cohen's $d = 0.25$). 그러나 유의한 상호작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런 차이는 물질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에서 더 두드러졌다. 즉, 한국 참가자들은 IPV 상황에서 사적 지지를 선호하지만 사적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정서적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미국 집단의 경우, 동일하게 2(거리감) × 2(형태) ANOVA 결과, 한국 집단처럼 거리감의 주효과가 유의했다($F(1,199) = 61.74$, $p < .001$, $\eta_p^2 = .237$). 즉, 그림 1-(b)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물질적 지지에서 모두 사적 지지를 공적 지지보다 선호했다(정서적 지지: $t(199) = 7.71$, $p < .001$, Cohen's $d = 0.55$, & 물질적 지지: $t(199) = 6.50$, $p < .001$, Cohen's $d = 0.46$). 그러나 한국 집단과는 달리, 형태의 주효과($F(1,199) = 1.15$, $p = .286$, $\eta_p^2 = .006$)와 거리감과 형태의 상호작용($F(1,199) = 0.95$, $p = .330$, $\eta_p^2 = .005$)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미국 참가자들은 정서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없었고, 공적 지지에 비해 사적 지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서 공통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과



주 1. 그래프의 오차 막대는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주 2. 한국 집단의 사회적 지지 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사적 지지(M = 5.36[SD = 1.29]), 정서-공적 지지(M = 4.31[SD = 1.63]), 물질-사적 지지(M = 4.85[SD = 1.60]), 물질-공적 지지(M = 4.40[SD = 1.76]); 미국 집단의 사회적 지지 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사적 지지(M = 5.69[SD = 1.49]), 정서-공적 지지(M = 4.58[SD = 1.78]), 물질-사적 지지(M = 5.55[SD = 1.67]), 물질-공적 지지(M = 4.56[SD = 1.88])

그림 1. 사회적 지지 추구의 네 차원에 따른 평균 (한국과 미국 집단)

미국 참가자 모두 지지 형태와 상관없이 사적 지지를 공적 지지에 비해 유의하게 선호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사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양상이 정서적 지지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미국 참가자들은 해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두 참가자 집단을 합쳐 2(문화) × 2(거리감) × 2(형태) ANOVA를 실시했을 때 삼원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F(1,398) = 0.65, p = .422, η_p^2 = .002).

개인차 변인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 상관

다음으로 사적·공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와 접근 및 회피동기, 정서 표현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접근동기와 사적 지지 추구 사이에서 지지 문화 및 지지의 형태와 관계없이 정적 상관이 관찰됐다(한국: 정서-사적 지지[r = .187, p = .008], 물질-사적 지지[r = .215, p = .002] & 미국: 정서-사적 지지[r = .164, p = .020], 물질-사적 지지[r = .208, p = .003]). 그러나 접근동기와 공적 지지와의 상관은 문화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1). 즉, 문화 공통적으로 접근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적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공적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는 접근동기나 회피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정서표현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도 문화 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정서표현과 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 추구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집단에서 정서-사적 지지(r = .165, p = .020)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물질-사적 지지와도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r = .121, p = .088). 미국 집단은 정서-사적 지지(r = .150, p = .034)와 물질-사적 지지(r = .167, p = .018)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즉, 문화 공통적으로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접

표 1. 사회적 지지 추구의 네 차원과 접근 및 회피동기, 정서표현 간 상관분석

한국 \ 미국	1	2	3	4	5	6	7
1.정서-사적	1	.689**	.234**	.211**	.164*	.008	.150*
2.물질-사적	.641**	1	.219**	.272**	.208**	-.013	.167*
3.정서-공적	.278**	.314**	1	.678**	.091	.009	.059
4.물질-공적	.165*	.121	.660**	1	.078	-.112	.041
5.접근동기	.187**	.215**	.059	-.059	1	.158*	.084
6.회피동기	-.057	-.078	.128†	.081	.195**	1	.085
7.정서표현	.165*	.121†	-.050	-.027	.233**	-.080	1

주. †$p < .10$, *$p < .05$, **$p < .01$, ***$p < .001$.

근 및 회피동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공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표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 추구와의 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 접근 및 회피동기나 정서표현과 같은 개인차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공적 지지 추구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참가자의 사회적 지지 추구 경향을 주로 공적 및 사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비교하고, 개인차 변인인 접근 및 회피동기와 정서표현이 사회적 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미국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지 추구 합산 점수가 한국 참가자들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를 재현한 결과이다(예: Kim & Sherman, 2007; Kim et al., 2006; Taylor, 2011).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미덕이다(Heine, 2001). 따라서 한국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피하지만, 미국 집단은 비교적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공적 지지 추구가 사적 지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위기상황에서는 여전히 가까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선호가 일관적이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물질보다 정서적 지지를 선호했다. 정서적 지지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주된 지지 유형으로 여겨져 왔다(Burleson, 2003). 본 연구에서 사적 지지가 공적 지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정서적 지지가 물질적 지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공유하는 생활 방식으로 관계망을 유지해온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접근 및 회피동기 그리고 정서표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두 문화에서 사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공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IPV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공적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향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지지 추구를 높이기 위해 개인차 요인(예: 접근 및 회피동기, 정서표현)을 변화시키려는 방안보

다 사회제도와 같은 외적 요인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는 개인 내적 요인보다 상황적 맥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의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Ross & Nisbett, 1991). 특히 대다수 사람들이 수건을 재활용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호텔 투숙객의 수건 재사용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처럼(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사람들은 타인의 일반적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에 민감하다(예: Cialdini, Reno, & Kallgren, 1990; Schultz et al., 2007). 따라서 사람들이 공적 지지를 덜 선호하는 이유가 이용률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공적 지지 추구가 문화 공통적으로 낮다는 점을 관측하여 이를 높이는 방안을 뒷받침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체계 자체에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신고해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방관하는 등의 부정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적 지지를 정비하고 사회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PV 맥락에서 도움의 제공 주체를 가족과 친구에 한정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지지 선호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적 관계망이 부족해도 접근가능한 공적 지지를 선호하는 정도를 분석했고, 사회적 지지를 네 차원으로 탐색함으로써 정서 및 사적 지지에 편중됐던 이론적 한계를 보완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 연구로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차원을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했기 대문에 정서-사적 지지, 정서-공적 지지, 물질-사적 지지, 물질-공적 지지를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사회적 지지 구성 개념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r의 효과크기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함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G*Power a priori 분석 및 Cohen(1988)의 기준을 참조하여 기대되는 효과크기를 작거나 중간 정도(r=.10-.25)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작은 효과크기를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학문적 함의를 반영할 수 있다. 넷째, 참가자는 여성 이성애자로 국한하여 모집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 중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실제 경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IPV 상황을 상상하도록 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경험자를 대상으로 외적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폭력 생존자가 참가했다면 IPV 맥락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사회적 지지 선호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단순 가정문을 읽은 참여자는 심리적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추상적인 응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도(Kashima & Gelfand, 2025)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회적 지지 선호도가 나타났지만, 한국에서 물질 측면에서 사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이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지 추구를 상대적으로 꺼리는 경향이(Kim et al, 2006) 물질적 지지에 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송지원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적 지지, 친밀한 관계, 사회 변화, 낙인의 심리적 영향 등이다.

나진경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문화, 사회계층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망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와 확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효정. (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과 쟁점: 현장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40, 249-285. https://doi.org/10.30719/JKWS.2024.03.40.1.249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Allen, N. E., Bybee, D. I., & Sullivan, C. M. (2004). Battered women's multitude of needs: Evidence supporting the need for comprehensive advocacy. *Violence Against Women, 10*(9), 1015-1035. https://doi.org/10.1177/1077801204267658

Beyer, K., Wallis, A. B., & Hamberger, L. K. (2015).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6*(1), 16-47. https://doi.org/10.1177/1524838013515758

Burleson, B. R. (2003).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emotional support: What the study of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can tell us about close relationships, emo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0*(1), 1-23. https://doi.org/10.1111/1475-6811.00033

Bybee, D., & Sullivan, C. M. (2005). Predicting revictimization of battered women 3 years after exiting a shelter progra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 85-96. https://doi.org/10.1007/s10464-005-6234-5

Carmo, R., Grams, A., & Magalhães, T. (2011). Men as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18*(8), 355-359. https://doi.org/10.1016/j.jflm.2011.07.006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92-100. https://doi.org/10.1207/s15327558ijbm0401_6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https://doi.org/10.1037/0022-3514.56.2.267

Cialdini, R. B., Reno, R. R., & Kallgren, C. A. (199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15-1026. https://doi.org/10.1037/0022-3514.58.6.1015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771587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DePrince, A. P., Labus, J., Belknap, J., Buckingham, S., & Gover, A. (2012). The impact of community-based outreach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victim safety in women exposed to intimate partner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2), 211-221. https://doi.org/10.1037/a0027224

Esteve, A., Pohl, M., Becca, F., Fang, H., Galeano, J., García-Román, J., Reher, D., Trias¯Prats, R., & Turu, A. (2024). A global perspective on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1970-2020. *Genus, 80*(1), 2. https://doi.org/10.1186/s41118-024-00211-6

Feeney, B. C., & Collins, N. L. (2003). Motivations

for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Influences on caregiving behavior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8), 950-968. https://doi.org/10.1177/0146167203252807

Gable, S. L. (2006). Approach and avoidance social motive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74*(1), 175-222.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73.x

Gervais, S. J., Vescio, T. K., Förster, J., Maass, A., & Suitner, C. (2012). Seeing women as objects: The sexual body part recognition bia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6), 743-753. https://doi.org/10.1002/ejsp.1890

Goldstein, N. J., Cialdini, R. B., & Griskevicius, V. (2008). A room with a viewpoint: Using social norms to motiv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hote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3), 472-482. https://doi.org/10.1086/586910

Gross, J. J., & John, O. P. (1997). Revealing feelings: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35-448. https://doi.org/10.1037//0022-3514.72.2.435

Impett, E. A., Gable,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39. https://doi.org/10.1037/0022-3514.89.3.327

Kashima, Y., & Gelfand, M. J. (2025). *Culture.* In D. T. Gilbert, S. T. Fiske, E. J. Finkel, & W. B. Mendes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6th ed.)*. Situational Press. https://doi.org/10.70400/VMTM7805

Kim, H. S., & Sherman, D. K. (2007). "Express yourself": Culture and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1-11. https://doi.org/10.1037/0022-3514.92.1.1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comfort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2), 1595-1607. https://doi.org/10.1177/0146167206291991

Kokkoris, M. D., & Kühnen, U. (2014). "Express the real you" cultur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elf-expression as authentic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8), 1221-1228. https://doi.org/10.1177/0022022114542467

Liang, B., Goodman, L., Tummala-Narra, P., & Weintraub, S. (2005).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lp-seeking processes among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 71-84. https://doi.org/10.1007/s10464-005-6233-6

Marshall, A. D., Panuzio, J., & Taft, C. T.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military veterans and active duty serviceme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7), 862-876. https://doi.org/10.1016/j.cpr.2005.05.009

Ogbe, E., Harmon, S., Van den Bergh, R., & Degomme, O. (2020). A systematic review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terventions focused on improving social support and/or mental health outcomes of survivors. *PLoS ONE, 15*(6), e023517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5177

Ross, L., & Nisbett, R. E. (201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London, UK: Pinter & Martin Publishers.

Schultz, P. W., Nolan, J. M., Cialdini, R. B., Goldstein, N. J., & Griskevicius, V. (2007). The constructive, destructive, and reconstructive power of social norms. *Psychological Science, 18*(5), 429-434.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7.01917.x

Shannon, L., Logan, T. K., Cole, J., & Medley, K. (2006). Help-seeking and coping strategi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rural and urban women. *Violence and Victims, 21*(2), 167-180. https://doi.org/10.1891/vivi.21.2.167

Sylaska, K. M., & Edwards, K. M. (2014). Disclosur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o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 memb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5*(1), 3-21. https://doi.org/10.1177/1524838013496335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M.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90-21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5342819.013.0009

Van Wyk, J. A., Benson, M. L., Fox, G. L., & DeMaris, A. (2003). Detangling individual-, partner-, and community-level correlates of partner violence. *Crime & Delinquency, 49*(3), 412-438. https://doi.org/10.1177/0011128703049003004

World Bank. (2022, October 1). *Overview of gender-based violence. Gender Data Portal*. https://genderdata.worldbank.org/en/data-stories/overview-of-gender-based-viol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Intimate partner violence* (WHO/RHR/12.36).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estimates, 2018 - Executive summary*. World Health Organization.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1 차원고접수 : 2025. 07. 14.
수정원고접수 : 2025. 10. 16.
최종게재결정 : 2025. 11. 28.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1, 57-68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1.003

Brief Report

Social Support Seeking in the Contex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mparing Formal versus Informal Support

Jiwon Song **Jinkyu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women's preferences for different types of social support when seeking help in the contex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sults from 400 participan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wed that individuals from both cultures significantly preferred informal support over formal support.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analyses also revealed that regardless of culture, higher levels of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al expressivity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preference for informal support. However, these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ference for formal support.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different subtypes of social support - formal, informal, emotional, and material - and highlight the drawbacks of solely investing in modifying individual traits to promote the use of formal support systems among those vulnerable to IPV.

Key words :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Social support,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Expressivity